

16 일차

매일 매일 꾸준히!

다 했으면 17일차 달라고 메일주소와 함께 문자주세요~!

국어 영역

[1 ~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유로운 개인들이 모인 사회에 질서와 조화를 보장하는, 인간에 내재하는 숨은 성질은 무엇인가? 18세기 영국에서는 이 문제에 접근하는 두 흐름이 있었는데, 하나는 개인의 이성에서 사회 질서의 원리를 찾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개인에 내재하는 선천적인 도덕 감정에 주목하는 것이었다. 후자에 속하는 아담 스미스는 도덕 감정의 핵심을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 동감 능력이라고 보았다.

그가 말하는 동감은 관찰자가 상상에 의한 역지사지를 통해 행위자와 감정 일치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는 공평한 관찰자는 행위자가 직면한 상황과 처지 속에서 자신이라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를 상상해 보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관찰되는 행위자의 감정 및 행위와 비교하여 양자가 일치할 경우 거기에 동감하게 된다. 이때 관찰자는 행위자의 감정과 행위를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게 되며, 이와 달리 자신이 상상한 것과 다를 경우에는 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된다.

이러한 동감의 원리는 한 개인이 자신의 감정과 행위를 판단할 때에도 적용된다. 한 개인에게도 이기적 충동에 지배되는 행위자로서의 자기와 상상에 의해 관찰자의 입장을 취하며 반성하는 자기가 있다. 이 관찰자는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 감정과 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또 다른 자기로, 스미스는 이러한 추상적 존재를 '가상의 공평한 관찰자' 혹은 '마음속의 이상적 인간'이라 표현하였다. 자신의 감정과 행위는 이와 같은 관찰자의 동감에 의해 도덕적인 것으로 승인받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행위자의 행위는 이타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을 수 있다면 도덕적인 것으로 승인받을 수 있다. 공평한 관찰자가 자신도 행위자와 동일한 처지에 있었다면 같은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동감한다면, 행위자의 이기적인 행위도 도덕적인 것으로 승인받을 수 있다. 반면 이타적인 행위라도 그것이 적정성을 지니지 못해 도덕적인 것으로 승인받지 못할 수 있다. 예컨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 전혀 돌보지 않고 타인만을 위한 이타적 행위에 몰두하는 것은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기 어렵다.

그는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을 수 있는 범위까지 이타적 행위가 확대되는 것을 자해라 하고,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을 수 있는 범위까지 이기적 행위가 억제되는 것을 정의라고 하였다. 자해는 타인에 대한 적극적 시혜이므로, 사람들이 이를 행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보복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해에는 수익자는 있으나 피해자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을 침해하기 쉬우므로 결국 보복 감정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정의에 대한 침범은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스미스는 사회적 기능과 의미의 차원에서 자해와 정의를 구별할 것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자해는 정의보다 사회의 존속을 위해 덜 중요하다." 사회는 구성원 간에 상호 애정이 없어도 존립할 수 있으나, 정의가 침범 당하면 혼란이 극에 달하여 사회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즉, 정의는 사회 존립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정의를 존재케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도덕 감정, 즉 동감인 것이다.

1.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존의 이론으로부터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②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제기된 반론을 반박하고 있다.
- ③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특정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④ 상충하는 두 이론을 제시한 후 그 장단점을 대비하고 있다.
- ⑤ 가설을 설정하고 사례를 통해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2. 밑글에 나타난 아담 스미스의 생각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을 만들어 보았다. 적절한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이기적인 행위는 어떻게 도덕적인 것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가?
- ② 개인은 왜 이기적인 감정을 느끼거나 이기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가?
- ③ 인간에 내재하는 어떠한 성질에서 사회 질서의 원리를 찾을 수 있는가?
- ④ 관찰자는 타인의 행위와 동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무엇을 상상하는가?
- ⑤ 자신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하는 자기 안에 있는 존재는 누구인가?

3. <보기>는 아담 스미스에게 영향을 준, 한 철학자의 견해이다. 밑글의 ㉠과 <보기>에 나오는 [A]의 공통점이 아닌 것은? [3점]

— < 보 기 > —

이성은 어떤 사실을 확인하기만 할 뿐 도덕적 행위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 행위에 대한 도덕 판단은 쾌, 불쾌의 감정과 관련된다. 유용한 행위는 쾌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자신에게 유익한 것뿐만 아니라 남에게 유익한 행위에 대해서도 쾌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타인의 행과 불행을 [A] 마음속으로 함께 느끼는 능력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능력이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이끌어내어 개인의 행복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존과 번영을 가져오게 된다.

- ① 노력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것이다.
- ② 타인의 감정을 다른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다.
- ③ 유용성을 기준으로 하여 행위에 대한 감정을 촉발한다.
- ④ 개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존을 위해 기능한다.
- ⑤ 이타적 행위는 물론 이기적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할 때에도 작용한다.

4. ㉡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의와 달리 자해는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존재한다.
- ② 사회의 존속을 위해서는 이타적 행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 ③ 동감을 얻을 수 없는 이기적 행위는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
- ④ 정의가 제대로 지켜지는 사회에서는 결과적으로 자해도 지켜진다.
- ⑤ 인간은 자해보다 정의와 관련된 행위를 더 도덕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국어 영역

[5 ~ 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제 성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총생산(GDP)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는 국가라 하더라도, 경기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경기 변동은 실질 GDP*의 추세를 장기적으로 보여 주는 선에서 단기적으로 그 선을 이탈하여 상승과 하락을 보여 주는 현상을 말한다. 경기 변동을 촉발하는 주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1970년대까지는 경기 변동이 ㉠ 일어나는 주원인이 민간 기업의 투자 지출 변화에 의한 총수요* 측면의 충격에 있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민간 기업이 미래에 대해 갖는 기대에 따라 투자 지출이 변함으로써 경기 변동이 촉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총수요 충격에 대응하여 적절한 총수요 관리 정책을 실시하면 경기 변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총수요가 변해도 총생산은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의 자의적인 통화량 조절이 경기 변동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후 루카스는 경제 주체들이 항상 ‘합리적 기대’를 한다고 보고, 이들이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하여 경기 변동이 발생한다는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을 주장하였다. 합리적 기대란 어떤 정보가 새로 들어왔을 때 경제 주체들이 이를 적절히 이용하여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 주체들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 판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루카스는 ㉡ 가상의 사례를 들어 이를 설명하고 있다.

일정 기간 오직 자신의 상품 가격만을 아는 한 기업이 있다고 하자. 이 기업의 상품 가격이 상승했다면, 그것은 통화량의 증가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상승한 결과일 수도 있고, 이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 변화 때문일 수도 있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의한 것이라면 기업은 생산량을 늘릴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일정 기간 자신의 상품 가격만을 아는 기업에서는 아무리 합리적 기대를 한다 해도 가격 상승의 원인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상승한 경우에도 그것이 선호도 변화에서 온 것으로 판단하여 상품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의 임금은 상승하고 경기 역시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 수준의 상승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면, 기업은 자신이 잘못 판단했음을 깨닫고 생산량을 줄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루카스의 견해로는 대규모의 경기 변동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학자들은 경기 변동의 주원인을 기술 혁신, 유가 상승과 같은 실물적 요인에서 찾게 되었는데, 이를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이라고 한다. 이들에 의하면 기업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혁신이 발생하면 기업들은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려 할 것이다. 그 결과 고용량과 생산량이 증가하여 경기가 상승하게 된다. 반면 유가가 상승하면 기업은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를 덜 쓰게 되므로 고용량과 생산량은 줄어들게 된다.

최근 일부 학자들은 한 나라의 경기 변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로 해외 부문을 거론하고 있다. 이들은 세계 각국의 경제적 협력이 밀접해지면서 각국의 경기 변동이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고, 그에 따라 경기 변동이 국제적으로 전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실질 GDP: 물가 변동에 의한 생산액의 증감분을 제거한 GDP.
* 총수요: 국민 경제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소비, 투자 등의 목적으로 사려고 하는 재화와 용역의 합.

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기 변동의 주원인에 대한 여러 견해를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 ② 경기 변동의 과정에서 경제 주체들이 대응하는 방식을 대조하고 있다.
- ③ 경기 변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 ④ 경기 변동의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 경제 주체들의 생활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경기 변동으로 인한 생산량의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예측하고 있다.

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국가에서도 실질 GDP가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다.
- ② 민간 기업의 투자 지출 변화에서 오는 충격을 경기 변동의 주원인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정부의 적절한 총수요 관리 정책을 통해 경기 변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에서는 유가 상승이 생산 과정에서 쓰이는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생산량을 늘리는 실물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 ④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에서는 대규모로 일어나는 경기 변동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을 비판한다.
- ⑤ 경제적 협력이 밀접한 두 국가 사이에서 한 국가의 경기 변동이 다른 국가의 경기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7. ㉡을 참고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루카스가 경기 변동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가상의 사례는 금융 당국의 정책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던 그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경기 상승을 위해 통화량 증가 정책을 반복적으로 시행한다면, 기업들은 자기 상품의 가격이 상승할 때 [A] 할 것입니다. 합리적 기대를 하는 경제 주체들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줄여 나가기 때문입니다.

- ① 자신들의 합리적 기대와는 무관하게 생산량을 늘리려
- ② 통화량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생산량을 늘리려
- ③ 근로자의 임금이 변화되는 것을 고려하여 생산량을 늘리려
- ④ 소비자들의 선호가 수시로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생산량을 늘리지 않으려
- ⑤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상승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생산량을 늘리지 않으려

8. ㉠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얼마 후에 꺼져 가던 불꽃이 다시 일어났다.
- ② 그녀는 싸움이 일어난 틈을 타서 그 자리를 떠났다.
- ③ 그는 친구의 말에 화가 일어났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혔다.
- ④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어나 동아리의 위기를 해결하였다.
- ⑤ 체육 대회가 가까워질수록 승리에 대한 열기가 다시 일어났다.

국어 영역

[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어느 봄날의 산기슭, 탐욕스러운 아버지와 이에 순종하며 동생들을 보살피는 장남, 아버지의 강요로 밭일에 열매인 차남부터 육남까지의 아들들, 막내가 살고 있다. 장남은 아들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라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아버지는 이에 동의한다. 한편 차남부터 육남까지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을 계획을 세운다.

[9장]

(전략)

장 남: 아버지한테 직접 들어 봐. (아버지에게) 아까 약속하셨던 걸 모두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그게 뭔데?

장 남: 제 등에 업혀서 하셨던 약속을요.

삼 남: (부엌에서 쟁반 위에 대접 두 개를 받쳐 들고 나온다.) 이걸 봐! 백운사 스님들이 가르쳐 준 대로 잘 됐지? (아버지 앞에서 대접을 가리키며) 이걸 마실 거구요, 또 이걸 바르실 겁니다.

장 남: 아버지, 땅을 나눠 주신다구 다짐하세요.

아버지: (대접을 들고서 장남을 밀쳐 내며) 아, 그건 내가 젊어진 뒤 다짐해도 늦진 않아.

자식들: 저걸 봐. 저러니깐 믿을 수 없지!

아버지: (대접에 든 것을 마신다.)

차 남: 다음은 송진을 얼굴에 바르세요.

장 남: (아버지에게 다가가며) 아, 아버지…….

아버지: (장남을 다시 밀쳐내며) 비키라니깐! (송진 대접에 두 손을 담가서 얼굴에 바른다.) 이렇게 하면 된다더

냐?

차 남: 네. 얼굴에 골고루 바르세요.

아버지: (더 바르며) 골고루 잘 발라졌느냐?

차 남: 눈가에 주름살이 잔뜩 있네요. 눈을 감고 많이 바르세요.

아버지: (눈을 감고 그 위에 송진을 바른다.) 이젠 허물을 벗었으면 좋겠다.

차 남: 조금만요, 조금만. 송진이 식어야 벗겨 내지요.

아버지: (손을 부채처럼 펴서 얼굴에 부치며) 빨리 식어라! 빨리 식어!

자식들: (아버지를 붙잡고 뺨을 그리며) 빨리 식어라! 빨리 식어!

아버지: (뺨을 돌다가 넘어진다.) 아이구, 어지러워!

차 남: 식어서 굳었는지 눈을 떠 보세요.

아버지: 송진이 다 굳었다. 눈이 붙어서 안 떠져.

차 남: 아, 그럼 됐어요! (자식들에게) 아버지 눈이 안 떠진단다! 곡괭이를 들고 가서 아버지 방 밑 향아리들을 파내라!

자식들: (준비해 뒀던 곡괭이를 들고 아버지 방으로 몰려가 파묻힌 향아리를 파낸다.)

아버지: (허공을 더듬으며 고향을 지른다.) 이놈들이 나를 속였구나! 내 눈이 안 보여!

자식들: (향아리들을 파내 마당으로 나와서 자루에 돈을 담으며) 돈을 봐라! 이 돈을 봐!

아버지: 이놈들아, 내 돈이다! 내 돈 내놔라!

자식들: (돈 자루를 들고서 문밖으로 달려 나간다.)

차 남: (장남에게) 형님께겐 미안해.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조금씩만 나눠줬어도 이런 일은 안 당할 텐데……. 우린 이 돈 갖고 각자 갈 길을 가기로 했어.

아버지: (허공에 두 손을 내저으며) 내 돈, 내 돈, 내 돈 내놔라! 내 눈, 내 눈이 안 보여!

차 남: 아버지 눈은 더운물로 씻어 드려. 그럼 송진이 녹아서 눈을 뜰 수 있으니깐. 형님, 잘 있어.

막 내: (방문을 열고 뒷마루에 나온다.)

차 남: 막내야, 너도 몸조심하고 잘 있어. 아 참, 아버지 방에 들어가 보렴. 너 좋아하는 그 계집애, 무서워 떨고 있더라.

(무대 전면. 자식들이 편지를 읽는다.)

차 남: 아버지 전상서.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옥체 금안하시고, 어머니 같던 큰형님, 언제나 몸이 약했던 막내 동생도 잘 있는지요? 이젠 고향에서 보낸 그 봄날이 아스란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 봄날에, 저희 자식들은 왜 그렇게 조급했었는지, 아버지는 왜 그렇게 인색하셨는지, 꼭 꿈을 꾸고 난 것만 같습니다. 언젠가 꽃피는 봄이 되면 자식들과 더불어 가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오니, 안녕히 계십시오.

삼남, 사남, 오남, 육남 차례로: 이하 동문.

차 남: 고향집을 떠난 사람이면 그 누구나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내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마음속의 생각일 뿐, 한 번도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국어 영역

[10장]

봄이 다 지나간 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날의 대낮, 쇠약한 모습의 아버지가 대청마루에 걸터앉아 물끄러미 먼 곳을 바라보며 부채질을 하고 있다. 마당 우물에서는 동녀가 빨래를 하고 있다. 뒤뜰에서 매미의 울음소리가 흐드러지게 들려온다. 동녀, 빨래를 마당 가운데 매어 있는 빨랫줄에 던다. 소매를 걷어붙인 두 팔목이 시리도록 희다.

아버지: 몹시..... 답구나..... (사이) 부채질을 해도 더운 바람만 나구..... (사이) 애야, 너의 큰아주머니 어디 갔냐?

동녀: 네. 아주버님은 하지감자 캐러 밭에 가셨어요.

아버지: 벌써..... 하지감자 썰 때가 되었구나..... 하기는..... 매미가 극성맞게..... 우는..... 때니깐..... (사이) 막내는? 네 남편은 어디 갔냐?

동녀: 살구 따라 갔어요.

아버지: 살구 따라?

동녀: 네. 제가 신 것을 먹구 싶다구 했더니요.....

아버지: 네가 신 것을 먹구 싶어?

동녀: (부끄러워하며) 네.....

아버지: 부끄러워할 것 없다. 애를 가지면 자꾸만 신 것이 입에 당기는 거니깐..... (사이) 내 자식이..... 또 다음 자식을..... 볼 때가 됐지. 자꾸만..... 후회가 된다..... 이렇게..... 살고 가면 되는 것을.....

(후략)

- 이강백, 「봄날」 -

9. 윗글의 내용을 잘못 파악한 것은?

- ① '장남'은 땅을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아버지'의 약속을 상기시켰다.
- ② '차남'은 '장남'이 '아버지'의 편을 들어 왔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원망을 표출했다.
- ③ '삼남'은 '백운사 스님들'을 언급하면서 자신들이 준비한 것을 '아버지'에게 권했다.
- ④ '자식들'은 '아버지'가 '장남'에게 한 말을 듣고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 ⑤ '자식들'이 집을 떠난 이후에도 '장남'과 '막내'는 '동녀'와 함께 쇠약해진 '아버지'의 곁을 지켰다.

1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 나타나는 부자(父子) 간의 갈등은 그리스·로마 신화를 비롯한 수많은 서사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세대교체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아버지 세대'는 자신의 권력을 최대한 유지하려 하지만, '아들 세대'는 '아버지 세대'에 도전하여 자신들의 힘을 증명하려 한다. 이 작품의 제목인 '봄날'은 이러한 세대교체의 과정이 순환되는 계절의 흐름과 닮아 있음을 암시한다.

- ① 재산을 독점하고 '자식들'에게 맡일을 시키는 '아버지'는 '차남'을 비롯한 '자식들'에게 도전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젊어지고자 하는 '아버지'의 욕심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아버지'와 '자식들'간에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 ③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조금씩만 나눠줬어도 이런 일은 안 당할 텐데'라는 '차남'의 대사는 세대교체의 과정에서 유발된 '아버지'와의 갈등에 대한 후회를 드러낸다.
- ④ 여름날의 대청마루에 걸터앉은 '아버지'의 쇠약한 모습은 일련의 갈등 과정 이후 자신이 지녔던 권력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기존 세대를 표상한다.
- ⑤ '이렇게 살고 가면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대사에서, 세대가 교체되는 과정의 속성을 깨닫고 이에 순응하게 되는 '아버지'의 자각을 확인할 수 있다.

1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무대 중앙 및 후면 ㉡: 무대 전면 ㉢: 객석	윗글로 보아, 무대는 원편의 그림과 같이 구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에서는 9, 10장의 중심적인 이야기가 진행되고, ㉡에서의 내용은 ㉠ 혹은 ㉢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 ① ㉠에 등장하는 인물과 ㉡에 등장하는 인물은 서로 다른 시·공간적 배경에 위치하고 있다.
- ② ㉡에서의 '차남'의 발화는 ㉢의 관객을 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③ ㉡에서 제시된 '편지'의 내용은 ㉠에서 진행된 '[9장]'의 사건에 대한 '차남'의 인식을 드러낸다.
- ④ ㉡에서 제시된 '편지'의 내용은 ㉢에 있는 관객의 공감을 유도하여 ㉠에서 진행되는 사건 전개에 영향을 미친다.
- ⑤ ㉡에서 제시된 편지의 내용으로 보아 '아버지'에 대한 '차남'의 태도가 ㉠에서와는 달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어 영역

[12 ~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늦가을의 어느 날 저녁 무렵, 천 씨의 주막에 한 사내가 찾아온다. 사내는 주막집 눈 먼 여자에게 소리를 해달라고 한다.

소리가 마을로 들어서던 그 한여름이 지나가고 해가 훌쩍 뒤바뀌고 난 이듬해 이른 여름의 어느 날 밤, 소년의 어머니는 땅덩이가 꺼져 내려앉는 듯한 길고도 무서운 북통 끝에 흡사 핏속에서 쏟아내듯 작은 살덩이 계집아이 형상 하나를 낳아놓고는 그날 새벽으로 그만 영영 눈을 감아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던 다음 날 아침에야 비로소 소리의 사내가 그 후줄근한 모습을 드러내며 소년의 집 사립문을 들어서던 것이었다.

“일이 그렇게 되고 보니 그 소리를 하던 남자, 그러니까 내겐 아마 의붓아버지가 되었을 뻔한 그 사내는 이제 더 이상 얼굴을 들고 살아가는 수가 없게 됐제. 그래서 끝내는 애 어미되는 사람의 무덤을 만든 뒤에 그 길로 곧 핏덩이 싸들고 마을을 떠나고 말았대네!”

사내는 이제 남의 얘기라도 하듯이 담담한 얼굴이 되어 이야기를 끝맺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소년은 아직도 그때의 그 사내의 얼굴이 소리의 진짜 얼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소년에게는 여전히 그 뜨거운 햇덩이가 소리의 진짜 얼굴로 남아 있었다. 나이가 들어가도 마찬가지였다. 사정이 달라져버린 소리의 사내가 핏덩이 같은 갓난애와 소년을 데리고 이 고을 저 고을로 소리를 하며 밥구걸을 다니고 있었을 때도, 소리의 진짜 얼굴은 언제나 그 뜨겁게 이글거리는 햇덩이 쪽이었다.

괴롭고 고통스런 얼굴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심판인지 사내는 그 고통스런 소리의 얼굴을 버리고는 살 수가 없었다. 머리 위에 햇덩이가 뜨겁게 불타고 있지 않으면 그의 육신과 영혼이 속절없이 맥을 놓고 늘어졌다. 그는 그의 햇덩이를 만나기 위해 끊임없이 소리를 찾아다니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 식으로 이날 이때까지 반생을 지내온 숙명의 태양이요, 소리의 얼굴이었다.

“하니까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말을 하지 않아도 대개 짐작이 가겠네마는, 어쨌거나 나는 그런저런 내력으로 이 나이 마흔이 넘어서도 그 누추한 어릴 적 기억을 버리지 못해 이런 청승맞은 소리 비렁뱅이질을 계속하고 다니는 꼴이라네. 소리를 들으면 어렸을 적에 그 밭두렁가에 누워 보던 바다비늘이 아슴아슴 떠오르고 골짜기 숲으로부터 북더위를 씻어가던 한 줄기 바람결이 내 얼굴을 지나가고…… 아니 그보다도 나는 소리만 들으면 그 이마 위에서 무섭게 들끓고 있던 여름 햇덩이를 다시 보게 되곤 하니 말이네. 그런데 말이네, 그런데 난 오늘 밤 자네한테서 내 눈썹을 불태울 것 같은 그 뜨거운 햇덩이를 다시 보게 된 것일세. 자네처럼 뜨거운 내 햇덩이를 품은 소리를 만난 일이 없는 것 같단 말일세…… 이제 내가 이토록 자네 소리에 끌리는 까닭을 알겠는가…….”

사내는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도 마치 아직도 그 들끓는 태양별을 머리 위에 견디고 있는 듯이 얼굴을 심히 고통스럽게 찡그리고 있었다.

(중략)

“하지만 자네한테 오라비가 있었다 해도 어젯밤 손님이 그때의 오라비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보아하니 자네나 손님이나 양쪽 다 그런 일은 입에도 올리질 않았던 것 같은데 말이네.”

묵묵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주인 천 씨가 아직도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다. 하지만 여자는 아직도 전혀 목소리가 흐트러지는 기색이 없었다.

“오라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은 벌써 손님을 처음 대했을 때부터 들기 시작했소. 손님이 소리를 찾아다니게 된 내력을 말했을 때는 다시 의심할 여지도 없었고요. 하지만 정말 오라버니 소리가 목에까지 솟아오를 뻔한 것은 북채를 손님께 내어드리고 나서 제 소리가 오라비의 장단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오라비의 숨씨는 옛날의 제 아버지 되는 노인의 숨씨 그 대로였소.”

“그렇다면 자네 오라비라는 사람도 그뻘 자넬 알아보고 있었을 게 아닌가.”

“알아보았겠지요. 절 알고 여기까지 길을 찾아오신 건지도 모르고요. 모르고 오셨더라도 그 양반 장단을 놀아 나가면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이요.”

“그렇다면 글썽…… 자네를 알아보고도 오라비는 어째서 끝내 오라비라는 소리 한마디 못해 보고 그렇게 허망히 길을 떠나가고 말았단 말인가.”

“그것은 아마 오라비가 또 날 죽이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이요.”

“오라비가 자넬 죽이고 싶어 하다니?”

사내의 두 눈이 다시 크게 벌어졌다.

“노인네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신 것이 또 한 가지 있었답니다. 당신은 늘 소리를 할 때 오라비 눈에 살기가 도는 것을 보았더라고요. 당신이 소리를 하면 오라비는 이상스럽게 눈빛이 더워지면서 당신을 해치고 싶어 못 견뎌 하더랍니다. 오라비가 싫은 짓을 참아가면서도 의붓아버리를 따라 다닌 것은 그 불쌍한 노인네가 당신의 어머니를 죽인 거라 작심하고 어미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였을 거랍니다. 노인네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서 원수를 갚으라고 오라비 앞에 더욱 힘이 뻗치게 목청을 돋워대곤 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오라비는 결국 원수를 갚는커녕 당신 편에서 먼저 노인의 소리를 못 이기고 도망을 치고 말았다는 말씀이었지요. 그런데…… 어젯밤엔 저도 소리를 하면서 오라비한테서 그런 살기가 완연하게 느껴져 오더구만요. 오라빈 그걸 무슨 햇덩이 같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었지만, 그게 바로 살기였을 게라요. 오라비가 그 햇덩이 때문에 이마가 뜨거울 때 당신은 살기가 일고 있었던 것이요.”

“자네는 그럼 오라비한테서 그런 살기를 느끼면서도 무슨 정성으로 밤새껏 그리 목청을 뽑았던가? 오라비 살기가 부풀어 끝장이라도 내고 싶었던가 말이네.”

“…….”

“그리고 또 자네 오라비란 사람도 그런 살기가 돌았다면 어째서 끝내 자네를 해치지 못하고 말도 없이 문을 나갔겠는가 말이네.”

“그야 오라비는 옛날에도 노인을 해치진 못했지요. 노인을 해치고 싶어 했다 뿐, 소리 때문에 외려 당신 쪽에서 몸을 피해 달아난 위인이었다지 않습디까. 오라버닌 제 소리에 살기가 일었을지 모르지만, 제 소리 때문에 또 당신 쪽에서 먼저 몸을 피해가신 것입네다.”

“그걸 자네 오라비도 알았을까. 그 오라비한테도 자네가 이미 오라비를 그토록 알아보고 있는 눈치를 말이네.”

“소리가 어우러져 나가면서 오라버니도 죽히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요.”

“…….”

틈을 주지 않고 물어대던 사내가 마침내 입을 다물었다.

- 이청준, 「소리의 빛」 -

국어 영역

1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 인물의 내적 독백을 통해 인물 사이의 갈등을 전달하고 있다.
- ②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병렬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③ 한 인물이 다른 인물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서 과거의 사연이 드러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중립적 위치에 서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인물들의 다른 기억을 대조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여 사건에 내포된 다양한 의미를 탐색하고 있다.

13. 윗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천 씨'는 '여자'를 찾아온 '사내(오라비)'를 보고, 그가 '여자'의 오빠임을 알았다.
- ② '여자'와 '사내(오라비)'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서로 말하지 않고 헤어졌다.
- ③ '사내(오라비)'가 찾아온 날 밤, '여자'는 그의 장단에 맞추어 소리를 했다.
- ④ '여자'는 출생 직후 어머니 없이 아버지의 손에서 자랐다.
- ⑤ '천 씨'는 '여자'의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있다.

1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 작품에서 '사내'는 누이와 함께 '의붓아버지(노인)'를 따라다니다가 노인의 소리를 못 이기고 도망을 한다. 그러나 그는 운명적으로 소리를 찾아다니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예술(가)의 길'을 알레고리적으로 보여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술은 끊임없이 추구하는 과정만 존재하며, 그 길은 시련과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소리'와 '햇덩이'는 이와 같은 예술가의 길과 관련이 있는 상징적 이미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 ① '사내'가 '여자'에게서 '뜨거운 햇덩이'를 보았다고 했음에도 다시 길을 떠났다는 것은, 예술의 길이 끝이 없는 과정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사내'가 '소리'로 상징되는 노인에게 '살기'를 품었으면서도 결국 해치지 못한 것은, 그가 예술의 길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사내'가 버리고 살 수 없는 '소리'가 '고통스런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술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시련과 고통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④ '사내'가 '여자'에게 보여 준 장단의 솜씨가 옛날의 노인의 솜씨 그대로였다는 것은, '사내'가 '햇덩이'로 상징되는 '소리'의 절대적 경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사내'가 노인의 '소리'를 못 이기고 도망을 쳤음에도 끊임없이 '소리의 진짜 얼굴'을 찾아다니는 것은, 그가 예술가의 길을 '숙명'으로 여기는 인식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설

③②③③①
③⑤②②③
④③①④

[1~4] (인문) 아담 스미스, 「도덕 감정론」

인간의 동감 능력을 바탕으로 도덕의 원리를 설명한,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을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한 개인은 공평한 관찰자로서 타인의 감정과 행위에 대해 동감하게 되면, 그것을 도덕적인 것으로 승인하게 된다. 이타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이기적인 행위도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을 받을 수 있다면 도덕적인 것이 될 수 있으며, 사회의 존립을 위해서는 공평한 관찰자가 동감할 수 있는 범위까지 이기적 행위를 억제하는 정의가 준수되어야 한다.

1. [출제의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을 파악한다.

이 글은 '동감'이라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이 글에서는 개인이 이기적인 감정을 느끼거나 이기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한 아담 스미스의 견해를 확인할 수 없다.

[오답풀이] 각 질문에 대한 아담 스미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① 이기적인 행위도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을 수 있다면 도덕적인 것으로 승인받을 수 있다. ③ 이성이나 도덕 감정, 특히 동감 능력에서 사회 질서의 원리를 찾고 있다. ④ 관찰자는 행위자가 직면한 상황과 처지 속에서 자신이라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를 상상해 본다. ⑤ '가상의 공평한 관찰자' 혹은 '마음속의 이상적 인간'이라고 표현된 추상적 존재이다.

3. [출제의도] 다른 글과 비교하여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

<보기>에서의 동감 능력은 '유용성'을 기준으로 행위에 대한 감정을 촉발하는 것이라면, 아담 스미스의 동감 능력은 '적정성'을 기준으로 감정을 촉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유용성을 기준으로 하여 행위에 대한 감정을 촉발한다.'는 것은 이 글의 ㉠과 <보기>에 나오는 [A]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이 글의 첫째 문단에는 '개인에 내재하는 선천적인 도덕 감정'이 언급되어 있으며, <보기>에서는 '마음속으로 함께 느끼는 능력을 타고났기 때문'이라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과 [A] 모두 노력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이 글의 둘째 문단에는 '동감은 관찰자가 상상에 의한 역사지를 통해 행위자와 감정 일치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나와 있으며, <보기>에서는 '우리가 타인의 행과 불행을 마음속으로 함께 느끼는 능력'이라고 나와 있으므로, ㉠과 [A] 모두 타인의 감정을 다른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이 글의 여섯째 문단에는 '정의는 사회 존립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정의를 존

제케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도덕 감정, 즉 동감'이라고 했으며, <보기>에서는 '이러한 능력이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이끌어내어 개인의 행복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존과 번영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했으므로, ㉠과 [A] 모두 개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존을 위해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이 글의 넷째 문단에서는 '행위자의 행위는 이타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을 수 있다면 도덕적인 것으로 승인받을 수 있다.'라고 했으며, <보기>에서는 '행위에 대한 도덕 판단은 쾌, 불쾌의 감정과 관련'되고 '자신에게 유익한 것뿐만 아니라 남에게 유익한 행위에 대해서도 쾌의 감정이 일어난다'고 했으므로, ㉠과 [A] 모두 이타적 행위는 물론 이기적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할 때에도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4. [출제의도] 핵심 정보의 전제를 파악한다.

㉠의 핵심은 사회의 존속을 위해 자해보다 정의가 중요하다라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을 수 있는 범위까지 이기적 행위가 억제되는 것을 정의라 하였으며, 정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정의에 대한 침범이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은 동감을 얻을 수 없는 이기적 행위가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5~8] (사회) 이종화, 신관호 「거시경제학」 정운찬, 김영식 「거시경제론」

경기 변동 이론의 주원인에 대한 여러 견해를 설명하는 글이다. 1970년대 이전에는 민간 기업의 투자 지출 변화에 의한 총수요 측면의 충격을 경기 변동의 주원인으로 보았으나, 1970년대 이후 정부의 자의적인 통화량 조절이 경기 변동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후 루카스는 '합리적 기대'를 하는 경제 주체들이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써 경기 변동이 일어난다는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을 주장한다. 그리고 루카스에 대한 비판으로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이 나타나고, 최근 일부 학자들은 해외 부문을 경기 변동의 원인으로 거론하고 있다.

5. [출제의도] 글의 전개 방식을 파악한다.

이 글은 경기 변동의 주원인에 대한 여러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먼저 1970년대 이전의 견해와 1970년대 이후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그 다음에 루카스의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을 소개하고, 이어서 루카스의 견해에 대한 비판을 제시한 뒤,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과 해외 부문을 경기 변동의 중요한 요소로 거론하는 최근의 견해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3문단과 4문단에서 경기 변동이 일어나는 과정을 가상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나, 경제 주체들이 대응하는 방식을 대조하고 있지 않다. ③ 이 글은 경기 변동을 촉발하는 주원인에 대해 여러 견해를 소개하고 있을 뿐, 경기 변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⑤ 5문단을 보면 생산량이 증가하면 경기가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경기 변동으로 인한 생산량의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예측하고 있지 않다.

6. [출제의도]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5문단을 보면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에서 경기 변동의 주원인을 기술 혁신, 유가 상승과 같은 실물적 요인으로 설명한다고 한다. 유가가 상승하면 기업은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를 덜 쓰게 되므로 고용량과 생산량이 줄어든다고 하였으므로, 유가 상승이 생산 과정에서 쓰이는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생산량을 늘리는

실물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1문단을 보면 경제가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국가라 하더라도 경기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고 하였으므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국가에서도 실질 GDP가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다. ② 2문단을 보면 1970년대까지는 경기 변동이 일어나는 주원인을 민간 기업의 투자 지출 변화에 의한 총수요 측면의 충격에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였는데, 이 입장에서는 정부가 적절한 총수요 관리 정책을 실시하면 경기 변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민간 기업의 투자 지출 변화에서 오는 충격을 경기 변동의 주원인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정부의 적절한 총수요 관리 정책을 통해 경기 변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5문단을 보면 루카스의 견해로는 대규모의 경기 변동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일부 학자들이 경기 변동의 주원인을 실물적 요인에서 찾는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을 주장하였다고 했으므로,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에서는 대규모로 일어나는 경기 변동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을 비판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6문단을 보면 세계 각국의 경제적 협력이 밀접해지면서 각국의 경기 변동이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한다. 상관관계란 두 가지 가운데 한쪽이 변화하면 다른 한쪽도 따라서 변화하는 관계이므로, 경제적 협력이 밀접한 두 국가 사이에서 한 국가의 경기 변동이 다른 국가의 경기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7.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황을 추론한다.

'선생님'은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루카스가 설명한 '가상의 사례'를 들어 금융 당국의 통화량 조절 정책의 효과를 신뢰하지 않았던 그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루카스의 가상의 사례에서 나오는 기업은 합리적 기대를 하는 경제 주체로 통화량 증가로 인해 상품 가격이 상승하였을 때 이를 자신들의 상품에 대한 선호도 변화로 판단하여 상품 생산량을 늘린다. 그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잘못된 판단임을 깨닫고 생산량을 줄인다. 선생님의 설명에서와 같이 경기 상승을 위해 금융 당국에서 통화량 증가 정책을 시행하면 기업들은 이 글의 '가상의 사례'에 나오는 기업처럼 초기에는 상품 생산량을 늘렸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합리적 기대를 하는 경제 주체들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어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줄여 나간다고 한다. 결국 기업은 통화량 증가 정책이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상품 생산을 늘렸다가 줄였던 경험을 통해 상품 가격이 상승한 원인을 통화량 증가 정책으로 인한 것이라 판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A]에는 기업들이 자기 상품의 가격이 상승할 때 이를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상승한 것으로 판단하여 생산량을 늘리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3문단을 보면 루카스는 경제 주체들을 항상 '합리적 기대'를 하는 존재로 보고 있으므로, 자신들의 합리적 기대와 무관하게 생산량을 늘리려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통화량이 계속 증가하면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계속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 기대를 하는 기업에서는 생산량을 늘리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④ 4문단을 보면 기업에서는 상품 가격의 상승 원인을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로 판단하면 생산량을 늘리게 된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통화량 증가 정책이 시행된 초기에는 자신들의 상품 가격이 상승한 원인을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로 판단하여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정책이 반복적으로 시행되면 상품 가격의 상승을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가 아니라 정부의 통화량 증가 정책에 따른 전반적인 물가 수준의 상승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선호가 수시로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생산량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8.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경기 변동이 일어나는’에서 ‘일어나다’는 ‘어떤 일이 생기다’라는 의미이다. 이와 문맥적 의미가 유사한 것은 ‘싸움이 일어난’의 ‘일어나다’이다.

[오답풀이] ①, ⑤ ‘약하거나 희미하던 것이 성하였다.’라는 의미이다. ③ ‘어떤 마음이 생기다.’라는 의미이다. ④ ‘몸과 마음을 모아 나서다.’라는 의미이다.

[9~11] (회곡) 이강백, 「봄날」

「봄날」은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 간의 갈등을 설화적 시공간의 사건으로 환원시킨 작품이다. 극의 초반부에서는 재산을 움켜쥐고 가족 구성원 위에 군림하는 탐욕스러운 아버지와, 이런 아버지에게 순종하면서 동생들을 어머니처럼 보살피는 장남, 병약한 막내, 그리고 아버지의 강요로 끊임없는 농사일에 내몰리는 차남부터 육남까지의 다섯 아들들로 구성된 가족 관계가 제시된다. 다섯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불만을 끊임없이 표출하지만 장남은 동생들을 달래면서 아버지를 설득하여 아들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겠다는 다짐을 받아낸다. 그러나 다섯 아들들은 아버지를 속여 재산을 빼앗아 달아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다. 재산을 모두 잃고 쇠약해진 아버지는 탐욕스러웠던 자신의 지난날을 후회하면서 아들들을 그리워하고, 아들들 역시 아버지에게 맞섰던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한다. 작품의 제목인 ‘봄날’은 그 계절이 지나는 상징적 의미와 관련되어, 세대 간의 갈등과 세대교체의 과정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드러낸다.

9.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을 파악한다.

‘형님에겐 미안해.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조금씩만 나눠줬어도 이런 일은 안 당할 텐데……’라는 ‘차남’의 대사에서, ‘차남’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장남’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남’에 대한 원망의 감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장남’은 땅을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아버지’의 약속을 ‘아버지’에게 상기시키면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아까 약속하셨던 걸 모두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땅을 나눠 주신다고 다짐하세요’와 같은 ‘장남’의 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삼남’은 ‘이걸 봐! 백운사 스님들이 가르쳐 준 대로 잘 됐지?’라는 대사와 함께 젊어지는 약을 가지고 나온다. 이 약을 먹으면 젊어진다는 것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다. ‘삼남’은 ‘백운사 스님들’을 언급하면서 자신들이 준비한 두 개의 대접을 아버지에게 권하고 있다. ④ ‘자식들’은 ‘아, 그건 내가 젊어진 뒤 다짐해도 늦진 않아’라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저걸 봐. 저러니깐 믿을 수 없지!’라며,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⑤ ‘자식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 달아난 ‘봄’이 다 지나간 뒤의 여름, 쇠약해진 아버지는 ‘막내’, 그와 짝을 이루어 아이를 가진 ‘동녀’, 그리고 동녀의 ‘큰아주머니’인 ‘장남’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10.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른 이해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조금씩만 나눠줬어도 이런 일을 안 당할 텐데’라는 차남의 대사는, 아버지의 탐욕 때문에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 인식을 드러낸다. 따라서 이 대사에서 아버지와 갈등에 대한 후회가 드러난다는 선지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재산을 차지하고 ‘자식들’에게 농사일을 강요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보기>에서 자신의 권력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는 ‘아버지 세대’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는 곧 ‘아들 세대’, 즉 ‘자식들’에게 도

전의 대상으로 규정된다. ② 젊어지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욕심은 <보기>에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아버지 세대’의 모습에 상응하는 것으로, 결국 ‘아버지’의 이러한 욕심은 ‘자식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 달아나는 극단적인 행위를 유발하게 된다. ④ 여름날의 대청마루에 걸터앉은 ‘아버지’의 쇠약한 모습은, ‘아들 세대’와의 갈등이 끝나고 기존에 지녔던 권력을 상실하게 된 ‘아버지 세대’의 모습을 표상한다. ⑤ ‘이렇게 살고 가면 되는 것을…….’이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대사는, 세대교체 과정이 계절의 흐름처럼 자연스럽게 순환되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1. [출제의도] 무대 공간 사용의 효과를 이해한다.

①에서 ‘차남’이 읽는 ‘편지’는 ‘아버지’에게 보내고자 하지만 부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은 ③에서 진행된 [9장]의 사건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한편 차남의 대사는 ④의 관객들을 대상으로 발화되어, 관객들이 ‘차남’의 속마음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⑤의 내용이 관객의 공감을 유도하면서 ③에서 진행되는 사건 전개에 영향을 끼친다는 선지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③에서 진행되는 [9장]과 [10장]의 사건은 가족들의 고향집을 배경으로 각각 어느 봄과 뒤이은 여름에 일어난 일로 제시된다. ⑥의 등장인물들은 이 시공간을 떠나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데, 이는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렀’다거나 ‘고향집을 떠난 사람’과 같은 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⑥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싶어’ 했지만 ‘한 번도 보내지는 못했다’는 ‘차남’의 대사는 자신의 행동을 극중 인물이 아닌 ④의 관객을 향해 설명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⑥에서 제시된 편지 중 ‘그 봄날’에 ‘저희 자식들’은 조금했었고 ‘아버지’는 인색했었다는 구절과, ‘그 봄날이 아스란히 멀게만 느껴진다’는 구절에서, ‘차남’이 지닌 당시 사건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⑤ ③에서 ‘차남’은 ‘아버지’를 자신을 억압하는 대상으로 인식하지만, ⑥의 ‘차남’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면서 ‘아버지’를 찾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12~14] (현대소설) 이청준 「소리의 빛」

이 작품은 「서편제」, 「선학동 나그네」와 함께 연작으로 구성된 「남도 사람」 중 한 편이다. 한의 자리를 찾아 헤매던 이복 오라비와 소리꾼 누이가 만나 하룻밤 소리관을 벌이지만, 서로 오누이임을 알면서도 그냥 헤어지는 사건을 중심으로, 한(恨)의 생명력을 풀어 본 소설이다. 제시문의 중략 이전 부분은 오누이가 주막에서 과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고, 중략 이후 부분은 ‘사내’가 길을 떠나버린 뒤 ‘여자’가 주막에서 ‘천 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으로, ‘오라비’에 대한 기억과 지난밤 ‘오라비’와 장단을 맞추었을 때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12.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파악한다.

중략 이전 부분은 사내(오라비)와 여자의 대화로 사내가 자신의 과거 사연을 오누이에게 전달하고 있고, 중략 이후 부분은 주막집 주인 천 씨와 여자의 대화로 여자가 자신의 과거 사연을 천 씨에게 전달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상황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내적 독백을 통해 인물 사이의 갈등이 전달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중략 이전 부분과 중략 이후 부분은 모두 주막집에서의 대화로, 동시에 일어난 사건들의 병렬적 구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서술자가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인물들의 다른 기억을 대조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⑤ 서술자가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한 부분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서술자는 중략 이전 부분에서는 오라

비의 기억을 서술하고 있고, 중략 이후 부분에서는 천 씨와 여자의 대화 장면을 간단히 설명해 줄 뿐이다.

13. [출제의도] 작품의 사건을 파악한다.

중략 뒷부분의 ‘어젯밤 손님이 그때의 오라비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는 서술을 통해 천 씨가 ‘사내(오라비)’를 ‘여자’의 오빠라고 알았다는 진술이 잘못된 이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천 씨의 ‘자네를 알아보고도 오라비는 어째서 끝내 오라비라는 소리 한마디 못해 보고 그렇게 허망히 떠나가고 말았단 말인가’에서 ‘여자’와 ‘사내(오라비)’가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 말하지 않고 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손님이 소리를 찾아다니게 된 내력을 말했을 때는 다시 의심할 여지도 없었고요. 하지만 정말 오라비니 소리가 목에까지 솟아 오를 뻔한 것은 복채를 손님께 내어드리고 나서 제 소리가 오라비의 장단을 만났을 때였답니다’에서 여자가 ‘사내(오라비)’가 자신의 오빠임을 알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소년의 어미는 땅덩이가 꺼져 내려앉은 듯한 길고도 무서운 북통 끝에 흡사 핏속에서 쏟아내듯 작은 살덩이 계집아이 형상 하나를 낳아놓고는 그날 새벽으로 그만 영영 눈을 감아 버린 것이었다’, ‘사내가 핏덩이 같은 갓난애와 소년을 데리고 이 고을 저 고을로 소리를 하며 밥구걸을 다니고 있었을 때도’에서 여자가 어머니 없이 아버지 손에서 길러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천 씨의 말에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여자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 [출제의도] 외적 증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보기>에서 ‘햇덩이’는 ‘과정만 존재하는’ ‘예술(가)의 길’을 상징하는 이미지라고 진술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예술(가)의 길’은 그것을 구성하는 과정만 있을 뿐 끝이 없다. 이는 ‘노인’이든 ‘사내’든 그들이 추구하는 예술에는 절대적 경지가 존재할 수 없음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오라비의 숨씨’와 ‘노인의 숨씨’는 모두 절대적 경지에 ‘도달’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사내’는 과거에 보았던 ‘햇덩이’의 이미지를 찾아 ‘소리를 찾아다니고’ 있다. 이는 <보기>에서 말하는 ‘예술(가)의 길’의 알레고리적 표현이며, 따라서 ‘소리’, 혹은 ‘햇덩이’로 상징되는 ‘끊임없이 추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② ‘사내’는 끊임없이 ‘소리’를 찾아다니는 인물이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소리’로 상징되는 노인을 헤치는 것은 ‘소리’를 훼손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노인을 해칠 수 없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③ <보기>에서 ‘예술(가)의 길’은 시련과 고통의 연속일 수 밖에 없는 끊임없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리’의 ‘고통스런 얼굴’은 ‘소리’에 닿고자 하는 ‘사내’의 ‘시련과 고통’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⑤ ‘사내’가 ‘소리’로 상징되는 ‘노인’을 떠났지만, ‘운명적으로 소리를 찾아다니는’ 것은 그가 예술가의 길을 떠날 수 없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